“전주驛舍 확 바뀐다” 동부권 개발 본격화
〈역사〉

철도시설공단, 시설개선·타당성 조사 추진

마중길·아중호반도시 등 랜드마크 기대

지난 35년간 호남의 관문역할을 했으면서도 신도심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에 밀려 외면받았던 전주역 중심의 전주동부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사업이 시작되면 현재 동부권 일대에서 추진 중인 첫 마중길 조성사업,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아중호반도시 건설 등과 함께, 향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공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따라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와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조사한 뒤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실상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주역사가 품격 있는 역사로 탈바꿈되는데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기관에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물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전면 개보수에 따라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확충하는 한편 그동안 신도시 개발 등에 밀려 소외받던 전주 동부권 개발에 숨통을 열어주는 동시에 전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권일대는 또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 사거리까지 850m 대로의 차도를 줄이고 인도 폭을 확장해 명품 가로 숲을 채워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기 편한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마중길이 완공되면 버스킹 공연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주시가 전주역 앞 등 구도심에 조성할 첫 마중길 조감도.

명품 가로 숲은 시민들이 헌수한 희망나무로 꾸며지며, 벤치와 파고라, 보행광장 등 각종 휴게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그동안 모텔촌 등 유흥가로 인식된 아중지구도 아중호수 중심의 아중호반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소통광장과 가족 숲, 야외무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아중호수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호수 주변 수상산책로와 무대광장 관람석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중심으로 인근 기린봉의 생태자원과 아중역 레일바이크, 호동골 매립장을 활용한 시민공원 등 주변의 다양한 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할 경우 전주 동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역사의 전면개선과 첫마중길 조성사업, 아중호반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에 밀려 상대적인 빈곤감에 있던 전주 동부권이 전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동부권 개발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심도시 전주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시내버스 탑재형 시스템 내년 도입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인도와 버스베이 등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시내버스 통행량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0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선행 시내버스가 주행 중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후, 배차간격 10분 이후 같은 장소를 지나는 다른 시내버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촬영한 경우 위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 고정형 단속시스템과 이동식 차량 단속시스템은 촬영 위치가 노출돼 있어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 전 구간에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내버스 단속시스템은 시스템 여건상 기존에 운영돼온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는 달리 불법주정차 시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군 드림스타트

아이와 함께 스키캠프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 60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전북 덕유산 리조트에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스포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안전교육과 스키강습, 리프트 탑승 등 전문 스키강사의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고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평가 대상

멜론 명품화 등 소득 증대 기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2016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는 도내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와 성과, 지역농업의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과 치유농업을 통한 감성농업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닌 곳으로, 이 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창멜론을 명품화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은 또 미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농촌개발대학 치유농업과를 운영하고,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 아그로힐링 텐푸드 6차 산업육성 등 농촌체험과 치유음식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부안군, 전통 찻그릇 복원 … 관광상품 활용

부안군은 고려청자 기법으로 전통 찻그릇과 향수병을 복원·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최근 1년간 ‘천 년 전통 도자 다기(茶器)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보안면에 있는 청자박물관에서 보고회를 하고 그동안 제작된 다기 80여점을 선보였다.

복원된 전통 다기는 도자기 전문가들이 찻잔·주전자·병 등 차와 관련된 각종 유물을 선별한 뒤 이를 3차원(3D) 스캐닝 기법을 통해 전자도면으로 만들고 부안청자협회 도예가들이 이를 토대로 복원·제작했다. 전통 다기는 고려청자 기법뿐 아니라 조선 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기법으로도 제작됐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정읍 무성서원·고창갯벌 ‘유네스코’ 후보에

전북도는 29일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후보에 뽑혔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신청후보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17년 7월까지 최종 선정한다.

전북도는 무성서원의 문화적 가치와 고창갯벌 보존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는 자료, 연구사업, 국제학술대회 기초자료 등을 확보해 후보 선정과 2019년 최종 등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2020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19년), 남원·장수 가야고분군(2020년), 김제 벽골제(2022년)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고훈석기자 gh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종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협마트 현대아파트옆 매 22억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답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바다 전망좋음 1억2천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화순군 도곡면 드들강변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5억1천5백

투자 · 매도 · 교환

- 북구 각화동 상업지 1121㎡ 병원 등 복합건물 적합 64억
- 대인동 상업지 580㎡ 오피스텔 사옥 생활주택 적합 13억
- 무안군 무안읍 다세대 원룸 부지 319평 은행 3억7천 매도 1억
-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6600만원
- 광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좋음 7억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적합 5억2천
- 강진군 옴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찰·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용 교환가능 5억
- 광산구 송정동 주거지 611㎡ 투자에 적합 2억천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좋음 3억6500
- 북구 망월동 마을내 대지 430㎡ 시골생활도 가능 1억3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건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옥, 광고제작 등 적합 3층건물임 매도 2억6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담바람
- 운림동 증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화정동 대로면 대지 235㎡ 건물 293㎡ 상가신축용 7억천
- 모텔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돌고개역에서 4분거리 리모델링된 2층주택 대지 144㎡ 건평 118㎡ 은행6천 주차장있고 생활여건 좋음 임대가능 1억8700
- 월산동 큰소방도로접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32평, 코너, **전망최고**
■ 20층중 9층, **전체 리모델링**
■ 사무실 전용
■ 시세 - 1억 4000만원
■ **급매 - 8000만원 (일시불)**
■ **2017년 1월 10일까지**
■ 보 500만원에 월55만원
임대가능
■ 문의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